

수사 9부 능선 넘었다... 이제 경호처 관계자에 집중

특별수사단, 체포영장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총 55명 입건 尹 반려견 옷 구입·생일에 장기자랑 의혹, 직권남용 추가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관련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으면서 남은 수사 대상과 과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지만, 경찰은 형사 1000여명을 투입해 사실상 '체포 작전'을 주도했다. 이제 남은 수사력은 경호처 관계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피의자 조사에 응한 경호처 관계자는 '은건파'로 꼽히던 박종준 전 처장과 이진하 본부장 2명이다. 남은 세 명은 모두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은건파 2인은 조사과정에서 경호처 내부 군열 상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경호 업무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단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두 강경파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강경 대응을 주도했던 점을 고려하면 시점의 차이일 뿐 산병 확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신 부장은 아직 한 차례 출석 요구만 거절한 상태. 경호처가 이날 사실상 2차 영장 집행을 막지 않으면서 '강경파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김 부장이 향후 경찰 조사에 협조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차장이 경호관들에게 윤 대통령 부부 반려견들의 옷을 구입하게 하고, 생일에는 직원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의혹 등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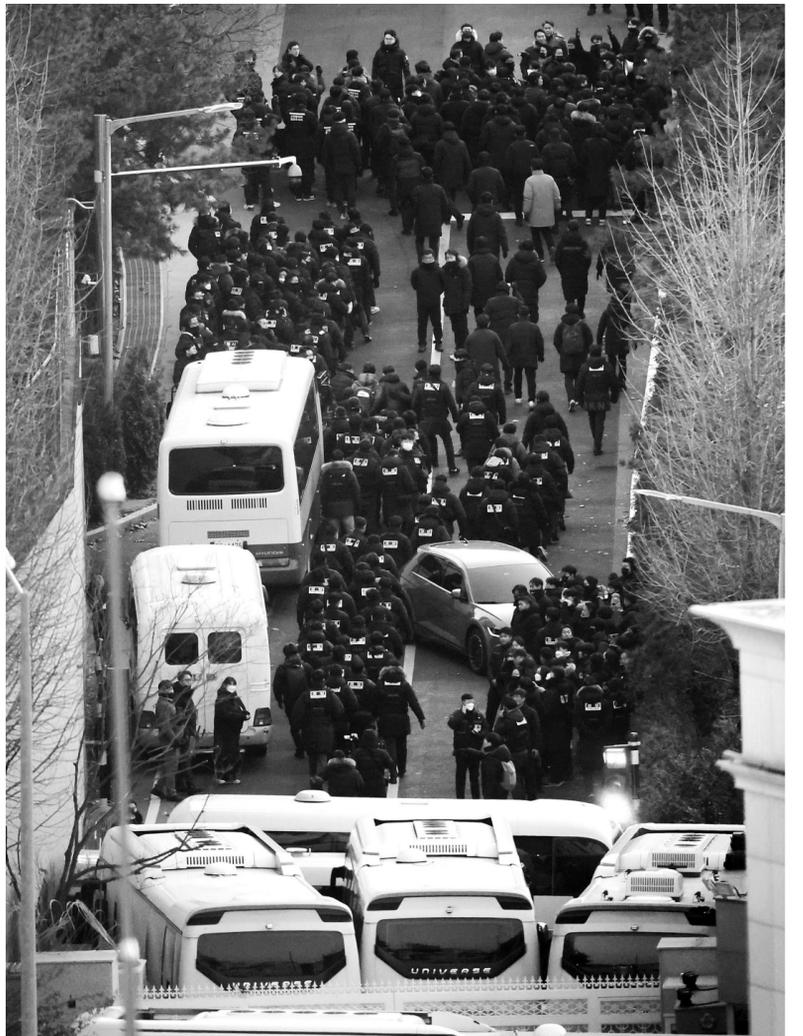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이 조사하고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55명이다. 이중 핵심 피의자는 검찰에 넘겼다. 조지호 경찰청장, 이봉식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대표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의 계획'과 관련해 입건한 구상회 육군 27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상우 방첩사령부 1처장 등도 입건한 상태. 조만간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2차 조사도 조율 중이다. 다만 피의자인 한 총리를 실제 검찰에 넘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길터준 경호처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처장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질문지만 책 한권 ... 48시간 내 '내란 수괴' 입증 총력

공수처,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집중 조사... 구속영장 기반 다지기 정치인 체포, 국회·선관위 봉쇄 지시 등 '불법 계엄' 모의 정황 집중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6일 출석 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다. 질문지만 200쪽 이상으로, 책 한 권 수준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했는지,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 의사당 봉쇄를 군과 경찰에 지시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분회의장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군 수뇌부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 시간대별 행적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쏘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특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계엄군의 선관위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신설하려 했다는 의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추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 극소수의 최측근 인사들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집중 조사한다.

'국회·정당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전시나 사법,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강행했고, 국무회의 등 법적 절차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이유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적멸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특검·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 심의와 출석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 절차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조사 후 서울구치소 독방 구금 전망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가 길어지면 이동 없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명대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 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